

마음에 화가 차올랐다. 그 순간, 두꺼비가 튀어나왔다!



진짜 일학년 옥 두꺼비를 잡아라!

신순재 글 | 김이랑 그림 | 천개의바람

체육 시간에 짝 줄넘기를 하는데 김양지 때문에 넘어졌어요.
창피하고 짜증이 난 그때 내 입에서 웅! 두꺼비가 튀어나와 김양지 이마에 달라붙었어요.
김양지가 소리치며 울었어요. 사과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내 기분이 축축해졌지요.

시무룩하게 걸어가는데 단짝 구현모가 축구하자고 불렀어요.
싫다고 돌아서는데, 축구공이 뒤통수를 때렸지요. 구현모가 놀라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내 입에서 두꺼비들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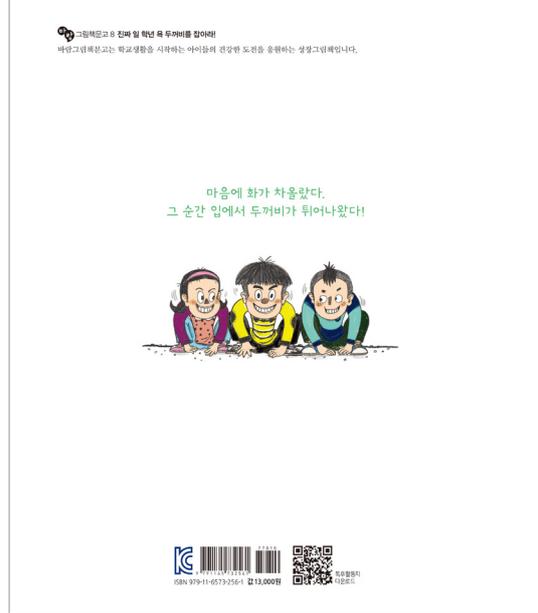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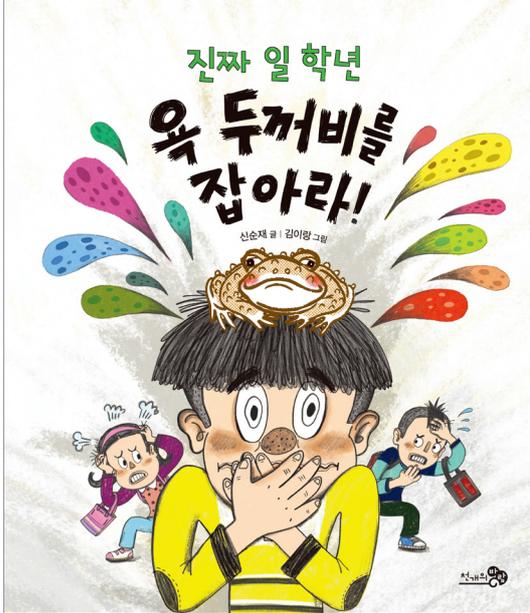
아, 이런. 구현모가 놀랐겠지요? 나를 싫어하겠지요?

네이버 검색창에 '천개의바람'을 검색하세요.
블로그에서 다양한 활동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볼까요?



● ‘옥 두꺼비’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 표지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자유롭게 써 보세요.

내용을 확인해요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단 뜻이에요.
상황을 보고 친구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을 써 보세요.



친구가 줄에 걸려 짹 줄넘기를 실패했을 때

친구가 찬 공이 실수로 내 머리에 맞았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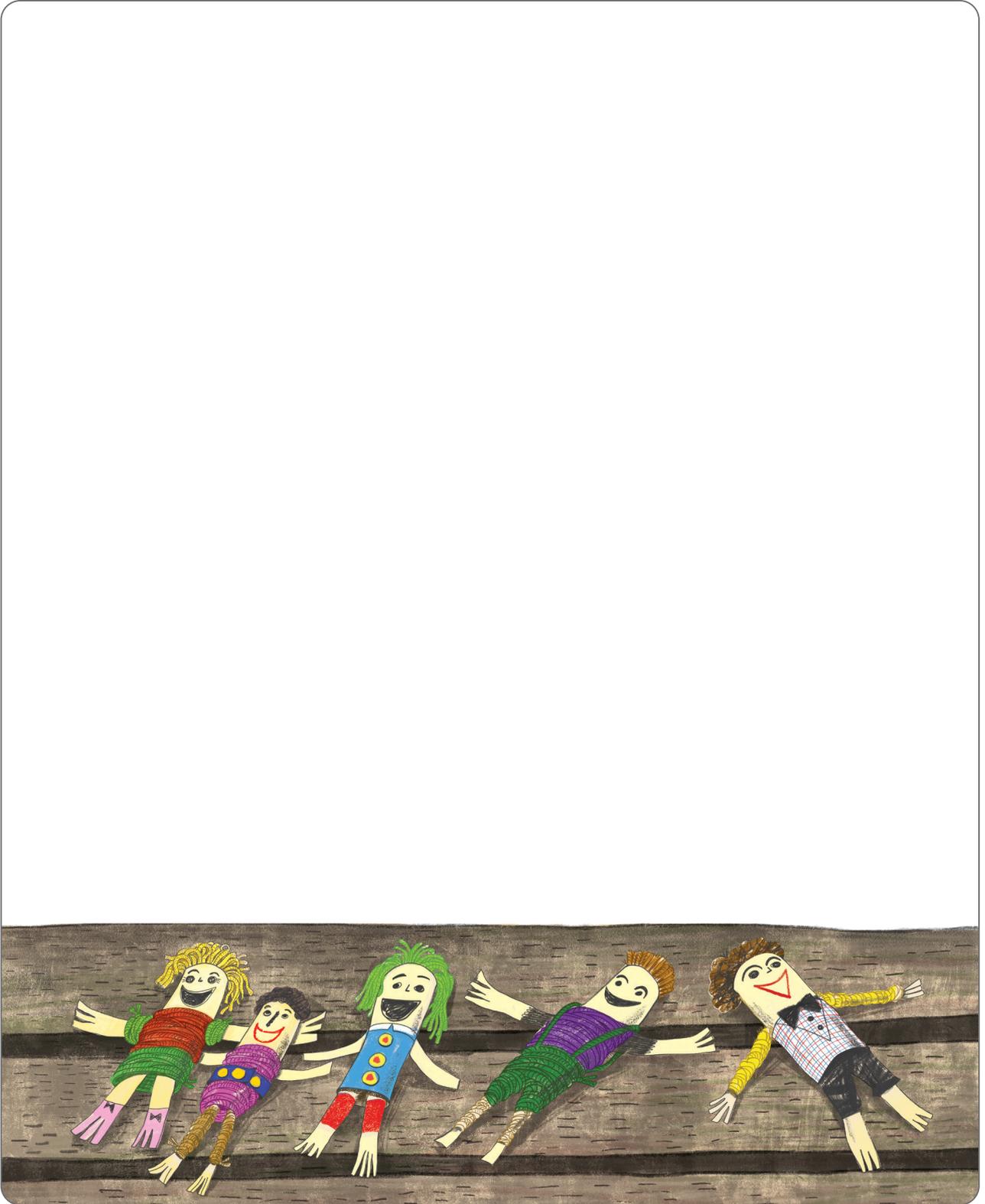
어려움에 처한 나를 친구가 도와준다고 할 때



걱정인형에게 모두 털어 버리기



나만의 걱정인형을 그려 보세요.
그리고 화가 났던 마음과 나쁜 생각들을 모두 털어 버리세요.





나를 돌아보기



화가 나거나 흥분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욕을 하게 되는 경우를 알아보고, 나는 얼마나 바른 말을 사용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 욕을 왜 하게 될까요? 무엇이 옳은 행동일까요?

1. 힘을 과시하려고 표현하는 욕

자신이 강하다는 걸 뽐내기 위해 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욕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되지요. 강한 사람일수록 친절하고 다정한 말을 해요.

2. 습관이 되어버린 욕

욕을 장난처럼 내뱉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욕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요. 한번 들인 습관은 고치기가 어려운 만큼 처음부터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기 위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 나의 말하기 태도

나의 말하기 태도는 어떤지 아래 보기들을 체크해 보세요.

- () 화가 나면 윗사람에게 반말을 하기도 해요.
- () 화가 나면 일단 큰 소리를 내요.
- () 화가 나면 아무 말이나 마구 내뱉어요.
- () 사람들을 흥보거나 놀리는 말을 자주 해요.
- () 사람들이 말할 때 끼어들어요.
- ()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 () 늘 부정적으로 말해요.

● 바르고 고운 말 연습하기

흥분이 될 때는 일단 심호흡을 크게 하며 감정을 가라앉히세요.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말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를 하면 보다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